

71년만에...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첫 재판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시작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을” 6월 24일 2차 공판기일

71년 전 여순사건 때 희생된 민간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역사적인 첫 재심 재판이 시작됐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아)는 316호 법정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된 장모씨 등 3명의 유족이 내 재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때 군과 경찰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자 장씨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끝에 이뤄졌다. 당시 순천시민이었던 장씨 등은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가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처형됐다. 재심이 열리기까지 재판에서는 군과 경찰이 장씨 등을 불법으로 체포해 감금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에서 유족이 승소했지만 검찰은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항고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원심을 확정하며 재심이 성사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 10분 가까이 시간을 할애해 진실규명을 다짐하고 법률적 한계를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여순사건에 대해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집단학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희생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법원이 부족하게나마 그 책무 중 일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심이 시작된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감 있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재심 절차는 당시 어떤 이유로 선고했는지 알아야 하지만 판결서가 존재하지 않고 명령서만 존재해 심판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측 변호인은 “희생자들이 무고하게 판결을 받은 내란죄의 실체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요청한 재판 진행절차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장경주씨는 심경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오랫동안 묻혀 있었고, 반란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왔다”며 생존 희생자 가족들의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판을 이룬 사실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망한 재심 청구인 2명에 대한 재판 진행절차를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시민단체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 죄없이 끌려가 목숨이 좌지우지됐던 무법천지의 역사를 사법부가 정확하게 직시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사법부는 당시 학살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국가의 품격을 다시 세우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전범기업 1차 집단소송 시작 29일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1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민변 관계자가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강제 노역 피해자 54명은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인권위 “공무원·교원 정치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

정치 기본권 보장...법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

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21조는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또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공무원과 시민의 지위를 면밀하게 구분해서 제한해야 하는데,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로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무원과 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교원과 공무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자 동시에 시민이라는 점을 인권위가 분명히 밝혔다”며 “국회와 정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3 해질 19:17 달뜨기 03:28 달지기 14:47

구름긴 하늘

대체로 흐린 후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12/23	보성	구름많음	9/21
목포	구름많음	12/20	순천	구름많음	12/23
여수	구름많음	14/20	영광	구름많음	10/20
나주	구름많음	10/23	진도	구름많음	11/20
완도	구름많음	13/21	전주	구름많음	11/23
구례	구름많음	9/23	군산	구름많음	11/20
강진	구름많음	11/22	남원	구름많음	10/23
해남	구름많음	10/22	축산도	구름많음	10/16
장성	구름많음	10/23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5~2.5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5~2.5	북서~북	1.5~2.5

◇ 생활지수

보통	뇌졸중	보통	좋음
감기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23 17:09	11:18 23:43
여수	간조	만조
	12:50 --:--	06:41 18:50

◇ 주간 날씨

날짜	5/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날씨	☁	☀	☀	☀	☀	☁	☀
기온	13/21	11/23	11/25	12/26	12/25	13/24	13/23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두배 인상

앞으로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두배로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

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이는 2017년 12월 제정 화재처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 교육부 ‘평생 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조선대학교가 교육부가 지원하는 2019년 대학의 평생 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에 선정됐다. 이로써 조선대는 교육부 평생교육학습체제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일반대학 23개(5개 권역 구분)를 선정할 결과,

광주에서는 조선대가 선정됐다. 조선대는 이번 사업 평가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비전 및 전략,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운영,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 성인학습자 친화형 평생교육 인프라, 지역사회 발전 연계 등에서 평균점수를 상회하는 우수한 점수를 받아 4년간 30억 원을 지원받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MODERN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시술 | 냉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채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